

# 한화오션·삼성중 대규모 선박 수주... 조선업계 실적 '청신호'

친환경 선박 중심 수주 행진

한화오션 에버그린 6척 계약  
삼성중 2조 규모 셔틀탱커 수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조선업계의 수주 행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혁신과 친환경 선박 개발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의 에버그린으로부터 2만4000TEU급 LNG이중연료추진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미터, 너비 61.5미터 규모로 2만4000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다. 특히 이 선박들에는 LNG 이중연료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 모터시스템(SGM), 공기유회환시스템(ALS) 등 한화오션의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오른쪽)와 장연이 에버그린 회장이 LNG이중연료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

이번 계약에서 에버그린이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을 선택한 것은 환경 규제를 충족함과 동시에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에버그린과 첫 협력을 맺으며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에버그린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신조 선박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는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믿고 발주해 준 선주사에 감사드립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도 원활한 수주를 이어가며 올해 수주 목표인 98억달러 중 16억달러의 수주고를 이미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셔틀탱커 9척을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총 1조 9355억원으로 지난 2023년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규모이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의 저장기지까지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는 원유 운반선으로 해상 선적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위치제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995년 국내 조선업 최초로 셔틀탱커를 건조한 바 있다. 이번 수주를 포함해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51척 중 29척을 수주함(57%)으로써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셔틀탱커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선박과 FLNG 등 고부가 해양플랜트를 두 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렉서스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LX 700h'. /렉서스코리아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 출시

렉서스코리아는 플래그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디 올 뉴 LX 700h'를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 올 뉴 LX 700h'는 '어떤 길에서도 편안하고 고급스럽게'라는 콘셉트로 지난 1996년 개발된 렉서스 최초의 SUV다.

이번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은 기존 LX의 '신뢰성', '내구성',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개발된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개량된 GA-F 플랫폼을 도입해 한층 더 정교한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실현했다.

또한 '디 올 뉴 LX 700h'에는 개량된 GA-F 플랫폼을 적용해 저중심화, 경량화, 차체 강성 향상 등 차량의 기본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의 판매 가격은 ▲4인승 VIP 1억9457만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5인승 오버트레이 1억6587만원 ▲7인승 럭셔리 1억6797만원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K-가전, 고효율 HVAC 솔루션 강화... 유럽시장 본격 공략

(냉난방공조)

ISH 2025

삼성 'EHS 모노 R290' 등 전시  
LG 주거 형태에 따른 솔루션 제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객 맞춤형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7~21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냉난방공조 전시회인 'ISH 2025'에 참가한다.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탄소·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사는 유럽 지역에 특성화된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을 나란히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약 489㎡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SlimFit ClimateHub)', 'EHS 모노(Mono) R290' 등 EHS 제품을 전시한다.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이다. 7형 터치스크린 기반 'AI 홈'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EHS 모노 R290'은 자연냉매인 R



삼성전자 모델이 'ISH 2025'에서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290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력한 성능으로 난방을 위해 최대 75도의 고온수를 공급한다.

삼성전자 전시장에는 기기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한 연결 편리성을 소개하는 전시 코너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삼성전자 가전과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전구·태양광 패널 등이 서로 연동해 집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혁신적 난방의 개척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 492㎡ 규모의

전시장을 꾸렸다. 주거용부터 상업용까지 주거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히트펌프를 앞세웠다.

LG전자의 대표 주거용 히트펌프는 '써마브이(Therma V)'다. 이 제품은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다. 화석연료를 태운 열로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스크롤 컴프레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도 우수하다.



LG전자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한 자연냉매(R290)를 적용한 히트펌프 '써마브이 R290 모노블록'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록 G'도 함께 전시해 주거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상업용 솔루션으로는 기존 냉매(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 수준인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멀티브이 아이는 고성능 AI 엔진을 통해 사람이 없을 땐 알아서 절전하고 상황에 따라 냉방 세기를 조절해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면서 전기료 절감에 도움을 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아트 바젤 홍콩' 컬렉션  
삼성 아트 스토어 전시

삼성전자가 2025 세계 최대 프리미엄 아트 페어 '아트 바젤 홍콩' 컬렉션 23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컬렉션에는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주진스와 홍콩 컨템포러리 작가 티코 리우 등 아트 바젤이 선정한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로 구성했다. 최지복과 배윤환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도 포함된다.

아트 바젤은 근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로 매년 홍콩, 바젤, 파리,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삼성전자는 2025년 아트 바젤의 공식 디스플레이 파트너로서 향후 아트 바젤의 '바젤 컬렉션'과 '파리 컬렉션'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아트 바젤 홍콩'에서 '경계가 없는, 아트에 뛰어든다' 콘셉트의 '아트큐브' 라운지를 마련한다. 더 프레임·마이크로 LED·Neo QLED 8K 등 주력 TV 라인업을 통해 '삼성 아트 스토어'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세계 최초

## HD현대중, 운항선박 MRO 신기술 개발

'3D 프린팅 기술' 평가·시연 성공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운항 중인 선박에서 긴급 유지·보수·정비(MRO)를 수행할 수 있는 3D프린팅 신기술을 개발했다. 지난해 미국선급(ABS)으로부터 '운항 선박 내 신속 MRO 대응을 위한 3D프린팅 시스템'에 대해 NTQ

(신기술 사용 적합성 인증) 2단계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한층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은 목표에 위치한 HD현대삼호에서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융합 실증기술(제품명: 3D프린팅 디지털 워크샵)'에 대한 최종 평가 및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선상에서 3D프린팅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물론, 선박 운동 및 진동 저감 장치에 대한 기술도 함께 검증했다. 아울러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상업화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다양한 부품에 대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항구와 선박 간 네트워킹을 구성해 필요한 부품을 원격으로 주문, 인근 항구에서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HD한국조선해양과 조선용

탄소강 분말소재 개발 등 소재의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3D프린팅이 가능한 부품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 절감 등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조선산업에서의 3D프린팅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선박 MRO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